공공기관 참여 유도하고 아파트 건립 20층 이하로 제한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개발 방식 개편 내용과 전망

3배 이상 늘어난 재정 감당·공공성 실행 여부가 관건

토지 소유주·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인 조율 과제

광주시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보다 크게 진전된 안이다. 개발 면적을 최소화해 '적정 이윤'을 설정하고, 공원이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공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상 민선 6기 막바지에 해당돼 정책의 연속성 측면이 우려스럽지만, 이번 계획이 '최적안'이라는 점에서 공원 보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소유자 등과의 이행 과정에서의 협의가 잘 마무리될 경우 '협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25개 공원 중 12개 공원 매입에 1629억원 투입**=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광주시내에서 공원지역이 해제되는 곳은 모두 25곳이다. 이 가운데 시는 월산·발산·학동·방림·신용(양산)·양산·황룡강대상 등 7곳은 전체 매입하고, 우산·신촌·본촌·봉주·영산강대상 등 5곳은 부분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에 들어가는 1629억원은 시 재정에서 투입된다. 시는 2020년까지 500억원 마련도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2022년까지 무려 1629억원의 예산 배정 계획을 공표했다. 운천, 화정, 광목 등 3곳은 타 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천공원은 호남대 쌍촌캠퍼스에 적용되는 '공공기여제', 화정공원은 5·18 트라우마센터 건립사업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시 재정 투입 규모를 3배 이상 증액시키면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6곳의 개발 압력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시는 2단계 공원의 개발 이익의 일부를 다른 공원의 매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한편 시는 2단계 사업 대상인 중앙공원(면적 300만6000㎡), 중외공원(243만9131㎡), 일곡공원(106만6166㎡) 등 100만㎡가 넘는 공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1단계 부작용 최소화…적정 이윤 보장에 주력**=민관거버넌스 공원개발소위원회 위원장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공원이 공공재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 무엇보다 값진 성과"라며 "2단계 사업에서는 사업자에게 조성비, 국·공유지 매입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공원 부지 매입만 하도록 하면서 개발 규모를 축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를 '슬림형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명명했다.

마륵·송암·수랑·봉산 등 1단계 공원 조성 제안서에 따르면 개발 규모가 평균 25%에 달했으며,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계획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에서 30% 미만으로 적용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하지만 2단계의 개발 규모는 10% 미만, 즉 9.3% 선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용도지역 역시 초고층 개발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배제, 20층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했다. 사업자에게 개발 면적에서 제외된 공원 부지를 매입해 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시민 편의 등을 감안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참여 유도, 개발 수익 공공위해 써야**=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점이다. 심사기준에서 아파트 시공실적을 강조하고 시민심사위원의 배점 비중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가 중복참여하는 것도 지적대상이었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재무구조경영 상태, 사업시행 안전성 등에 만점을 주고, 시공실적만이 아니라 시행실적도 인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국토부가 공공기관 제한 경쟁, 우선권 부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비계량점수와 시민심사단 평가 점수도 확대하는 등 변별력을 높이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같은 진일보된 안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재정 투입 확대, 공공성 강화 등 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해줬다"며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공원을 보전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중앙선대위원들과 함께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아직도 "접촉중"

지도부 광주서 선대위 회의

서구갑 김명진·홍훈희 경선

민주평화당이 2일 광주를 찾아 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었지만 지방선거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었고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기념 토론회도 진행했다.

또 평화당 지도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국민 여론조사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후보는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홍훈희 변호사 등 2명이다.

김 전 행정관은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 당 대표·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홍 변호사는 목포 출신으로,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청주지법 판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또 지도부는 "광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는 2~3명을 대상으로 막바지 접촉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무공천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도 일부 지도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에서는 승부를 해 볼만하지만 광역단체장은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전남지사 후보 역시 민영삼 최고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정하진 못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개성 박연폭포 볼 날 멀지 않았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23) 절정

남북 두 정상의 감격 어린 만남으로 커진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기대감 덕분인지 북한이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다. 누군가는 평양 옥류관 냉면을 먹으러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다고 하지만 북한 땅을 밟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겸재나 단원이 그렸던 옛 그림 속 명승지를 답사하고 싶다.

그 가운데에서도 김홍도의 스승이었던 표암 강세황과 겸재 정선이 걸작으로 남긴 '박연폭포'를 보러 고려의 옛 도읍지 개성을 맨 처음 여행하고 싶다. 고려말의 유학자 길재가 필마로 돌아들어 망국의 한을 노래했고, 황진이와 화담 서경덕의 사랑이 스며있는 개성은 어쩐지 연민과 회고의 감상에 젖게 해 시적이면서도 서사적인 느낌이 다분하다.

겸재 정선(1676~1759)의 '박연폭포'(1750년대 작)는 '금강전도' '인왕제색도'와 함께 겸재 진경산수화의 절정이자 조선시대 회화사의 절정을 빛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화면의 왼편 아래 소나무숲에서 폭포를 올려다 보고 있는 이 작품은 줄기차게 떨어지는 폭포소리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물줄기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듯 이른바 청각과 시각이미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공감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마치 지난 4월 남북 회담에서 두 정상이 지난 70여년 단절의 세월을 건너뛴 듯 거침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들 가슴을 뻥 뚫리게 했던 것처럼 박연폭포의 힘찬 물보라가 시원하다.

논고 '한국미술사의 절정'에서 미술사학자 이태호교수(명지대 명예교수)는 "박연폭포는 실제 풍경과 비교해서 차이가 날만큼 길이를 2배로 쫙 늘려 표현한 폭포를 중심으로 주변 풍경을 생략하고 압축한 화법을 구사한 겸재식 회화예술의 백미이자 최고"라고 '절정'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겸재 정선 작 '박연폭포'

민간공원 1단계, 우선협상자와 5개월째 협상중

마륵·수랑·송암공원 3곳

비행안전구역·교육부지

탈락업체 협약 금지 소송

광주시는 지난 1월 선정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5개월째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타당성 검증 용역결과와 우선협상단의 의견을 마륵·송암·수랑·봉산 등 4개 공원의 우선협상자에게 발송한 시는 오는 6월 안에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에게 우선협상자 지위가 넘어간다.

2일 시에 따르면 공원 특례사업 1단계 우선협상자 송암-고운건설(주), 수랑-(주)오렌지이앤씨, 봉산-제일건설(주), 마륵-호반베르디움(주) 등에게 제안 사업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와 전문가 3명, 시 직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우선협상단의 수정 의견을 이들 우선협상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일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마륵·수랑·송암공원이다. 마륵공원(면적 21만6150㎡)과 수랑공원(29만6211㎡)은 제안서 내용이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된다는 점이, 송암공원은 사업면적 중 10% 정도인 5만1639㎡가 광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육부지(교지)라는 점이 각각 논란이다. 마륵·수랑공원은 '비행안전구역 위반'으로 탈락업체의 이의신청과 함께 '사업협약 체결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며, 송암은 토지소유주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육부지(교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현장 실사를 마쳤다.

시는 우선협상자가 검증 용역 결과와 협상단의 의견을 수용하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사업자들은 첫 시작인 제안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모든 우선협상자의 의견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현재 우선협상자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초빙 공고

조선이공대학교는 1963년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사학 명문대학입니다. 우리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계승 발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덕망과 리더십을 갖춘 제11대 총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초빙 대상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 조선이공대학교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분으로서,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 제4조의 자격을 갖춘 분

제출서류

가. 총장공모지원서 나. 대학경영계획서
다. 자기소개서 라. 발전기금 납입영수증
마. 범죄경력조회서 바. 서약서
사.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해당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www.cst.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등록방법 및 마감

가. 등록 방법 : 방문 등록
나. 공고 및 등록 기간 : 2018. 5. 1(화) 09:00 ~ 2018. 5. 8(화) 17:00까지
다. 등록처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대학본부 5층, 교수평의회 사무실)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문의처 ☎062-230-8170/8881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